나토 전략 개념 '중·러 위협' 첫 포함

정상회의 스페인서 개막
나토군 강화·우크라 지원 등 논의
한·일 등 아태 정상도 첫 참석
핀란드·스웨덴 가입 절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일으킨 전쟁이 길어지는 와중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열린다.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인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부터 이틀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져온 안보 상황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나토는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의 평화를 산산조각 냈고, 에너지와 식량 위기를 일으켰으며,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뒤흔들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나토가 장기적으로 억지력과 방어력을 강화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나토는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이 장기적으로 나토 대응군의 주둔과 능력, 준비태세를 상당 수준으로 강화하는 데 합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고 그 지원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안도 조율할 것이라고 나토는 전했다.

나토는 또한 중국의 도전에도 공동 대응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위협과 함께 중국이 야기하는 도전을 처음으로 다룬 새로운 '전략 개념'을 승인할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이번에 나올 새 전략 개념이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한편 중국-러시아 관계 심화를 부각할 것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전략 개념 문서에는 나토가 처한 안보적 도전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임무를 포함해 나토가 앞으로 10년간 대응해야 할 우선순위가 담긴다.

나토가 2010년 포르투갈 리스본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전략 개념 문서에는 러시아를 '파트너'로 표현했고, 중국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커다란 변화로 여겨진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냉전 이후 가장 중요한 나토 정상회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신냉전 구도 속에서 진행되는 나토의 행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동맹국들이 러시아를 우리 안보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여긴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70년 이상 유지해온 중립 정책을 포기하고 나토 가입 절차를 밟는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핀란드와 인접국인 스웨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나토 가입을 결정했다.

유일하게 반대했던 튀르키예(터키)가 나토 정상회의 직전, 기존의 입장을 접고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핀란드와 스웨덴은 나토 가입에 성큼 다가섰다.

나토에 가입하려면 기존 30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하는데 튀르키예는 두 나라가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쿠르드족 세력에 포용적이라는 점을 문제 삼아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핀란드와 스웨덴은 양해각서에서 튀르키예가 요구한 대로 쿠르드족 무장 조직인 쿠르드민병대(YPG)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가입 찬성을 끌어냈다.

주요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3국의 협정을 환영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 정상들도 사상 처음으로 초청을 받았다. /연합뉴스

미 '찜통 지옥' 밀입국 트레일러 희생자 51명으로 늘어

미국행 밀입국자를 태운 '찜통 지옥' 트레일러 참사의 희생자가 모두 51명으로 늘었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방송은 28일(현지시간) 조사 당국을 인용해 남성 39명과 여성 12명이 이번 참사로 숨졌다고 보도했다.

전날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남서부 외곽에서 발견된 대형 트레일러에서는 불법 이민자로 추정되는 시신 46구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또 어린이 4명을 포함한 16명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이들 중 5명이 숨졌다. 희생자에는 10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 따르면 고열과 탈수 증상을 보인 일부 환자들은 위독한 상태여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텍사스주와 국경을 접한 멕시코의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외교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국적별 사망자 현황은 멕시코 22명, 과테말라 7명, 온두라스 2명이라고 밝혔다.

미국 당국은 검시 절차를 통해 희생자들의 신원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또 트레일러에서 뛰어내렸거나 숨진 채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탑승자를 찾기 위해 사고 현장 주변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국은 밀입국자를 싣고 가던 트레일러가 무더위에 '찜통 지옥'이 됐고, 온열 질환과 질식 현상 등으로 사망자가 속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미국 시민이 28일(이하 현지시간)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마련된 간이 추모 시설에 장미를 헌화하고 기도하고 있다. 전날 샌안토니오 외곽에서 멕시코 등 중남미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민자 시신 수십 구가 실린 트레일러가 발견됐다. 미국 당국은 이들이 무더운 기온으로 인한 탈수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일, 101세 나치 부역자에 5년형

법정 선 최고령 전범
수용소 간수…70여년 만에 죗값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전쟁범죄에 가담한 남성이 70여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고 영국 BBC방송 등이 보도했다.

독일 법원은 28일(현지시간) 올해로 101세인 요제프 쉬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쉬츠는 지금까지 독일에서 나치 부역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 중 최고령이다.

그는 20대 초반이던 1942~1945년 독일 베를린 북부 오라닌부르크에 있는 작센하우젠 강제수용소 교도관으로 근무할 당시 수용소 내에서 벌어진 수감자 3518명의 살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작년에 기소됐다.

1942년 소련군 포로들을 총살하거나 '지클론 B'라는 독성 가스를 이용해 수감자를 학살하는 것을 돕거나 방조한 것 등이 혐의에 포함됐다.

작센하우젠 수용소는 1936~1945년까지 나치 반대파, 전쟁포로, 유대인, 동성애자 등 2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수감된 곳이다.

특히 수 만명이 강제 노역을 하거나 의료 실험에 동원돼 목숨을 잃거나 죽임을 당했고, 굶주림과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했다고 작센하우젠 기념관에 기록돼 있다.

그러나 쉬츠는 전날 열린 최종 변론에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마지막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수용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했다고 지목된 기간에 농장 노동자로 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가 1942년부터 약 3년 간 강제수용소에서 근무했음이 드러났다며 그가 자신의 일을 매개로 대량학살을 자발적으로 도왔다고 적시했다.

다만, 100세가 넘은 나이를 고려할 때 그가 실형을 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무죄 선고를 요구해온 변호인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며,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연합뉴스

젤렌스키 "쇼핑몰 공격 러 테러국가 처벌 필요"

유엔에 현장방문 제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자국 쇼핑몰을 타격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과 관련해 유엔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원격 화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참여해 연설을 통해 "유엔이 특별대표나 아니면 사무총장을 (쇼핑몰 미사일 공격 현장으로) 보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러한 방문 조사를 통해 유엔이 "독립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이것이 정말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러시아의 침공은 유엔에서 '테러리스트 국가'의 법적 정의를 명기하고 그런 국가를 처벌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러시아를 향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트레이드마크인 올리브색 셔츠 차림으로 연설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쇼핑몰 미사일 공격에 관해 열린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1분간 묵념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는 전날 1000명의 민간인이 있던 크레멘추크의 한 쇼핑몰에 러시아 폭격기가 미사일을 발사해 지금까지 최소 18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으며, 실종자도 다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자국 미사일이 쇼핑몰 인근 무기고를 타격했고, 그 폭발로 당시 운영하지 않고 있던 쇼핑센터로 불이 번진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즈마리 디칼로 유엔 정무·평화구축 담당 사무차장은 안보리 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며 "최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들에 대한 공습과 미사일 공격의 최신 사례"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유럽 향하던 140명 탄 아프리카 난민 보트 불…14명 사망

세네갈 남쪽 해상에서 약 140명의 난민을 싣고 유럽으로 향하던 목제 선박에서 불이 나 최소 14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다고 AFP 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네갈 남부 카자망스 지역 해안 소도시 카푼틴의 데이비드 디아타 시장은 27일 해당 선박에서 불이 나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지금까지 시신 14구를 회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배에서 거의 90명이 구조됐고 이들은 "기니·나이지리아·감비아·세네갈인이었다"면서 실종자 수색이 진행 중인 만큼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카푼틴 보건당국은 생존자 중 21명이 다쳤고 전했다.

디아타 시장은 "생존자들이 연료가 보관된 장소 옆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 때문에 불이 시작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엔 의사가 없고 간호사만 있다. 시체안치소도 없어서 사망자의 시신을 즉각 매장할 수밖에 없다. 유가족들이 그들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연합뉴스